『人文科學』 제126집 2022년 12월
DOI http://doi.org/10.23017/inmun.2022.126..175

디지털 인문학의 독서법
- 멀리서 읽기에 관한 성찰-

이덕재*

I. 서론

중국 소설이 이른바 '친부 살해의 역사'를 시작한 것은 약 17세기이다. 적어도 『금병매』부터 주류로 여겨지는 문학을 의식적으로 넘어서려고 했다. 유럽 소설이 같은 일을 시작한 것은 19세기 말로 거의 300년 차이가 난다. 게다가 유럽에는 정전으로 여겨지는 소설이 없었다. 반면 중국은 유학자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미 정전으로 여겨지는 소설들이 있었다.[1] 소설이 발전된 곳은 중국이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후 소설의 주류는 유럽이 차지하게 된다.

왜 그런 역전이 발생했는가? 모레티(F. Moretti)는 그 원인을 출판량에서 찾는다. 18~19세기 유럽에는 수천 권의 소설이 있었다. 반면 중국은 출판된

*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과정

1) Moretti, F. Distant Reading (2013). 김용규 옮김 (2021). 멀리서 읽기. 서울: 현암사. 249 참조.

모든 소설을 다 합쳐도 천 권이 되지 않는다.[2] 18세기를 지나면서 서유럽 소설의 소비는 전세기에 비하여 약 30배에서 60배 증가했다. 자동차의 소비가 1세기에 걸쳐 15배 증가했다는 사실에 비추어보면 놀라운 수치다. 유럽은 어떻게 이토록 많은 책을 쏟아낼 수 있었고, 중국은 그러지 못했을까?

유럽의 문맹률이 낮아지면서 독자가 늘어났다는 답변은 틀렸다. 물론 독자가 늘었다. 그러나 1700년부터 1800년까지 2배가 늘었지 30배나 60배가 증가한 것은 아니다. 무엇이 바뀌었는가? 독서법이 바뀌었다. 정독(精讀)에서 다독(多讀)으로. 연구를 위한 독서에서 기분 전환용 독서로. 중국은 전통적으로 한 권을 정독했다. 그런데 유럽은 깔짝거리면서 여러 권의 책을 읽었다. 이 새로운 독서법은 소설을 새로운 미적지평으로 이끌었다.[3] 유럽 소설의 발흥은 독서법의 변화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현대에도 독서법의 변화가 생겨났다. 디지털 인문학(digital humanities)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유학자이든 헤겔주의자이든 후기구조주의자이든 신학자든 같은 독서법을 공유하고 있다. 가까이 읽기(cose reading)가 그것이다. 텍스트를 꼼꼼히 읽는 독서법은 인문학 연구자가 당연시하는 전제다. 반면 디지털 인문학은 가까이 읽기를 뒤집는다. 멀리서 읽기(distant reading)가 그것이다. 멀리서 읽기는 텍스트에서 멀리 떨어져서 전체를 조망하는 독서다. 이때 가까이 읽기로는 읽어낼 수 없는 지평이 드러난다. 이 글은 이미 세계의 학자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지평에 대한 리뷰이다. 모레티는 멀리서 읽기의 시각화 방법으로서 그래프(graph), 지도(map), 나무(tree)를 체계화했다. 이 방법들의 함의를 사유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디지털로 책을 읽는 것은 단순히 독서 도구의 변화가 아니라 독법의 변화다. 지금까지 인류가 해온 독서법과는 질적으로 다른 독서이다. 그런데 이는 양적 변화에서 기인한다. 한 사람의 짧은 수명으로는 인류가 적은 책 전체를 읽을 수 없다. 그런데 컴퓨터의 발달로 책 전체를 다룰 수 있게 되었다. (1)

2) 위의 책. 250 참조.
3) 위의 책. 252 참조.

즉 디지털 인문학은 가까이 읽기에서 멀리서 읽기로의 변화다. 나아가 개별적인 책들이 아니라 책들이 서 있는 지평에 대한 독서다. (2) 정전(canon) 중심에서 책 전체에 대한 독서법으로의 변화다. 나아가 지식을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독서에서 질문이 필수적인 독서로의 변화다. (3) 세계에 대한 사본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지도를 만드는 독서이다. 나아가 세계를 개별적인 장소들의 집합이 아니라 관계의 그물로 바라보려는 관점의 전환이다. (4) 원본인 정전과 경쟁자인 나머지 복사물들이라는 플라톤적 구도를 벗어나는 독서다. 나아가 나무는 분화한 가지 중에 죽은 가지들의 가치를 되살릴 가능성을 품고 있다.

모레티에 대한 국내의 논문은 27편이다. 중복저자를 제외하면 한국에서 20명이 모레티에 대해서 글을 적었다.[4] 이 글을 포함하면 21명이 될 것이다. 특히 모레티의 디지털인문학적 방법론을 진지하게 관심 갖는 논문이 적다. 그간의 국내의 모레티 연구를 요약한 논문이 있다. 김용수의 「세계문학과 디지털 인문학 방법론: 한국 학계의 모레티 연구」다. 김용수에 의하면, 한국 학자들은 모레티의 디지털인문학적 방법론에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과학적 방법에 대한 부정적 선입관 때문이다.[5] 본고의 논의가 약소하나마 모레티의 방법론에 대한 진지한 성찰로 비추었으면 한다.

II. 멀리서 읽기

디지털 인문학은 두 가지 의미로 통용된다. 첫 번째는 디지털 기술이 삶에 끼치는 영향을 탐구하는 연구다. 두 번째는 디지털화 시킨 인문학 자료를 컴퓨터로 분석하는 것이다. 인쇄된 활자를 하나하나 펼쳐서는 독해 불가능한 분량을 컴퓨터로 다루는 활동이다.[6]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두 번째 의미의

4) KCI, 검색어: 프랑코 모레티, 검색일자 2022.12.14. https://www.kci.go.kr/kciportal/po/search/poTotalSearList.kci

5) 김용수 (2019). 세계문학과 디지털인문학 방법론, 비평과 이론, 49호. 59-78. 60 참조.

디지털 인문학이다.

모레티는 전통적인 독서 방식인 꼼꼼히 읽기와 다른 독서 방식을 제안했다. 그것이 멀리서 읽기다. 꼼꼼히 읽기는 말 그대로 한 권 혹은 몇 권의 책을 꼼꼼히 읽어낸다. 그런데 멀리서 읽기는 수천만 권의 책에서 특정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사람이 책장을 펄럭거리면서 읽지 않고, 컴퓨터가 데이터를 처리하기 때문이다. 모레티는 이를 통해 "형태, 관계, 구조, 형식, 모델 간의 상호 연결성을 조망"[7]한다. 개별적인 책들을 들여다보아서는 알 수 없는 책들의 원리를 탐구하는 것이다.

그는 멀리서 읽기로 문학사를 재조명했다. 문학 비평가들이 다루는 문학 작품들은 대체로 정전으로 여겨지는 작품들이다. 이는 유형학적인 태도이다. 가령 괴테(J. W. Goethe)가 고전주의 문학을 대표하고 넓게는 독일 문학을 대표하는 식이다. 그런데 소위 상위 1%의 문학작품을 제외한 나머지 99%의 문학 작품들은 거의 다루어지지 못한다. 1%대 99%는 과장된 수치가 아니다. 19세기 영국 소설을 대상으로 했을 때 많이 잡아도 정전으로 인정받는 책은 전체의 0.5%다.[8] 모레티는 역사 속에서 잊힌 나머지 99%의 문학을 문학사로 불러온다.[9] 하지만 한 사람에게 주어진 짧은 인생으로는 역사상 나온 모든 문학책을 읽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멀리서 읽는다. 구체적인 책으로부터 멀어져 추상화된 책의 데이터를 다룬다.[10]

멀리서 읽기의 탐구 대상은 개별적인 책이 아니라 책이 생산되고 소비되는 법칙이다. 그래서 구체적인 대상들을 추상화시키는 방식을 사용한다. "왜냐하면 이는 개별 사례의 합이 아닌, 그 자체가 전체로서 파악되어야 할 집단적 구조이기 때문이다."[11] 구조는 개별 사례의 합이 아니다. 예를 들어 식사

6) 차주항 (2020), 빅데이터와 인문학의 미래, 문명과 경계, 3호. 43-77. 45 각주 2번 참조.
7) Moretti, F. (2005). La letteratura vista da lontano. 이재연 옮김 (2020). 그래프, 지도, 나무. 파주: 문학동네. 7.
8) Moretti F. (2013). 앞의 책. 101 참조.
9) 위의 책. 97 참조.
10) Moretti F. (2005). 앞의 책. 74 참조.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자. 밥을 먹는 주체인 사람과 밥이 되는 대상이 있다. 그런데 그곳에는 밥과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식사법'이라는 법칙이 작동하고 있다. 밥과 식사하는 사람들 개별을 보아서는 그곳에서 법칙을 추출할 수 없다.[12] 개별적인 대상은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전체는 예측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개별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밥을 먹을지는 예측 할 수 없다. 그러나 집단적 영역에는 일관성이 놓여있다.[13] 한국의 식사법을 학문적으로 알고 싶다면, 모든 한국 사람들의 식사 장면을 찍어 그 패턴을 분석하면 된다. 물론 식사법은 그런 방식의 분석이 힘들다. 데이터 수집부터 시작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책의 경우에는 수월하다. 책들의 경우 이미 방대한 데이터가 디지털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가까이 읽기도 중요하다. 지금 하고 있는 작업도 모레티에 대한 가까이 읽기의 결과물이다. 멀리서 읽기는 전통적인 독서를 대체하지 않는다. 오히려 가까이 읽기를 보완한다. 북극의 발견이 남극의 발견을 대체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혹은 근대 유럽인들이 다독을 했다고 해서 정독이 사라지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독서법이 어떤 새로운 인식의 지평을 열어주는가이다. 멀리서 읽기는 오래된 구분 짓기를 허문다.[14] 바로 정전과 그 외 책들의 구분 짓기이다.

정전으로 여겨지는 책들의 족보가 있다.(소크라테스는 플라톤을 낳고, 플라톤은 아리스토텔레스를 낳고…) 가령, 철학사는 많이 잡아야 300 여명 남짓 되는 철학자들을 다룬다. 그런데 그 나머지 철학자들도 있다. 문학사와 마찬가지로 인류의 철학사에서 소수를 빼고 나머지 철학자들을 모두 버리는 것은 아까운 일이다.

엄선된 극소수의 텍스트를 꼼꼼히 읽는 독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무엇

11) Moretti F. (2013). 앞의 책. 12.
12) 이정우 (2016), 사건의 철학, 서울: 그린비. 32 참조.
13) Moretti F. (2005). 앞의 책. 12 참조.
14) Moretti F. (2005). 앞의 책. 112 참조.

인가? 바로 “읽히지 않은 위대한 작가들”[15]이다. 그들은 시장으로부터 외면받고, 경쟁에서 도태되어 읽히지 않는 자들이다. 그들이 읽힐 가치가 없어서 우리에게 잊힌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정전들이 모두 당시의 다른 모든 작품보다 우수하다는 믿음은 근거가 없다.

모레티에 의하면, 정전을 만드는 것은 학자들이 아니라 시장이다. 우수함을 학자들에게 인정받아 정전으로 남은 것이 아니다. 가령 톨스토이(L. Tolstoy), 세르반테스(M. D. Cervantes), 오스틴(J. Austen), 발자크(H. D. Balzac), 도일(A. C. Doyle) 등은 출판되자마자 불티나게 읽혔다. 사회적으로는 출판 후 바로 정전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는 100년 뒤에 정전이 되었다.[16] 문학의 경우, 학계의 인정은 대중의 인정 뒤에 따라온다. 그 근거는 무엇인가? 모레티는 레이븐(J. Raven)이 분석한 1750~1769년 영국에서 제일 인기 있었던 문학의 목록을 인용한다. 필딩(H. Fielding), 스몰렛(T. Smollet), 디포(D. Defoe), 리처드슨(S. Richardson), 볼테르(F. M. AVoltaire), 골드스미스(J. Goldsmith), 세르반테스(M. D. Cervantes), 루소(J. J. Rousseau) 등이다. 지금까지 읽히는 정전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17]

물론 순간적인 인기가 그 책을 정전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당시에는 읽히지 않았지만 후대 사람들에 의해 정전으로 인정받는 책들도 있다. 가령, 지금은 고전 작품으로 읽히는 스탕달(M. H. B. Stendhal)의 『적과 흑』은 19세기 당시에 독자들로부터 무시당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데이터를 검토해보니 1830년~1900년 사이에 프랑스에서만 17쇄를 찍었다. 적게 팔렸다고 할 수 없는 수치다. 예외적인 정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반적인 현상인지 데이터를 통해 증명해야 한다.[18] 따라서 모레티보다 더 방대하고 다방면에 걸친 체계적인 분석 등장하기 전까지는 모레티의 주장이 설득

15) Moretti F. (2013). 앞의 책. 101.
16) 위의 책. 102 참조.
17) 위의 책. 103 참조.
18) 위의 책. 127, 미주 7번 참조.

력 있다.

모레티는 정전을 선택하는 시장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독자들은 A라는 소설을 읽고 그것을 계속해서 살아있게 만든다. 차라리 독자들이 A라는 소설을 구입하고, 다음 세대의 독자들이 등장할 때까지 출판업자들에게 그 책을 계속해서 찍게 만든다고 말하는 편이 더 나으리라."[19] 읽히는 책들은 후대에 남고 읽히지 않는 책들은 절판되어 사라진다. 어쨌든 책을 만드는 데 돈이 들기 때문이다. 돈이 되지 않는 책은 재판이 찍히지 않는다. 즉 대중이 정전을 결정한다. 일반 독자뿐만 아니라 비평가나 다른 저자들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마음에 드는 책을 언급하고 그 작가를 호명하며 널리 읽히는 데 이바지한다. 물론 그들이 자신이 후대 사람들에게 읽힐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을 남기기 위하여 소비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눈먼 정전제작자들인 셈이다."[20]

함축적으로 말해서 멀리서 읽기는 브레히트(B. Brecht)의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려는 시도다. 「어느 책 읽는 노동자의 의문」이라는 시에서 브레히트는 물었다.

> "일곱 개의 문을 가진 테베는 누가 건설 했는가?/ 책 속에는 왕들의 이름만 적혀 있다. / 왕들이 손수 돌덩이를 운반했을까? (중략) / 만리장성이 준공된 그날 밤 벽돌공들은 어디로 갔던가? (중략) / 젊은 알렉산더는 인도를 정복했다. / 혼자서 했는가? / (중략) 스페인의 필립황제는 자신의 함대가 침몰하자 울었다. / 그 말고는 아무도 울지 않았을까? (중략) / 그 많은 사실들, / 그 많은 의문들."[21]

브레히트는 역사적인 인물들의 업적에 대해 질문한다. 만리장성은 진시황이 아니라 진시황 이전부터 진시황까지의 석공들이 지었다. 진시황이 그 건축물을 설계 했다고 상상하기는 힘들다. 만리장성을 알고 싶다면 진시황이 아니

19) 위의 책. 103.
20) 위의 책. 105.
21) Brecht, B. (2018), The Collected Poems of Bertolt Brecht. 백정승 옮김 (2014). 서푼짜리 오페라/살아남은 자의 슬픔. 서울: 동서문화사 2014. 387-388.

라, 건축에 참여했던 그 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물어야 한다. 과연 진시황은 만리장성에 몇 번이나 가보았을까? 진시황보다는 만리장성에서 근무했던 병사들이 만리장성에 대하여 더 잘 알 것이다. 정전만을 읽는 사람은 결코 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죽을 것이다. 책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일단 책 전체를 보아야만 한다.

브레히트를 따라서 철학에 관하여 이렇게 물을 수 있다. 인도철학은 육파철학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육파철학은 정말 인도철학의 전부일까? 푸코(M. Foucault)는 20세기가 들뢰즈(G. Deleuze)의 세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20세기는 정말 들뢰즈의 세기로 기억되었을까? 근대 독일철학은 관념론이다. 그런데 칸트(I. Kant), 헤겔(G. W. F. Hegel), 피히테(J. G. Fichte), 셸링(F. W. Schelling), 쇼펜하우어(A. Schopenhauer) 말고 다른 철학자는 없었을까? 유명하지는 않지만, 자신의 골방에서 묵묵히 글을 적다가 늙어 죽은 위대한 철학자가 독일에 살지는 않았을까? 멀리서 읽기는 바로 이러한 의문들에 대한 작업을 시작할 수 있게 해준다. 그렇다면 어떻게? 모레티는 책들의 출판 연도, 지역, 사용된 기법, 제목 등의 데이터를 수집했다. 이른바 빅데이터(big data)다. 그는 데이터를 그래프, 지도, 나무라는 형식으로 시각화시켰다. 각각의 구조가 어떤 의미를 함축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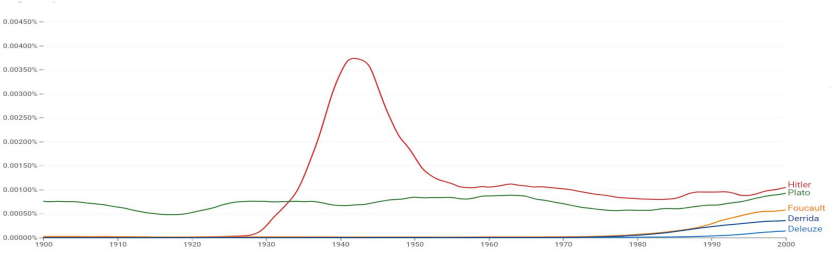
III. 그래프: 해석에서 독립된 데이터

첫 번째는 그래프다. 그래프는 주체에 의한 분석이 아니다. 즉 한 명의 권위 있는 학자가 내린 판단이 아니다. 만일 한 사람이 어떤 저자가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판단한다면 그것은 여전히 위계를 생산한다.[22] '읽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말에는 비교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읽을 만한 가치가

22) Aiden, E. & Michel, J. (2014). Uncharted: Big Data as a Lens on Human Culture. 김재중 옮김 (2015). 빅데이터 인문학, 진격의 서막. 파주: 사계절. 134 참조.

있다.'라는 말은 '다른 이런저런 책 보다 읽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말이다.

한 저자의 저작을 높이 평가하는 행위는 그 저자에게 임의적인 권위를 부여한다. 가령 푸코는 말했다. "(…) 아마도 언젠가 이 세기는 들뢰즈의 세기로 알려질 것이라고 믿는다."[23] 푸코는 권위 있는 철학자이지만, 이는 여전히 푸코라는 한 개인의 판단이다. 실제로 20세기는 들뢰즈의 세기로 기억되었는가? 구글 엔 그램 뷰어(google ngram viewer)에 의하면 아니다. 구글은 인류가 만들어낸 모든 데이터를 디지털화하려는 목적으로 세워졌다. 2013년 기준으로 인류가 적은 책의 4분의 1을 데이터화 하는 데에 성공했다. 구글 엔 그램 뷰어는 이중 일부를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다.[24] <그림 1>의 그래프는 책을 썼던 모든 인류(의 4분의 1 중에서 사용가능한 데이터)가 내린 판단이다. 20세기는 들뢰즈 보다는 데리다(J. Derrida)의 세기였으며, 데리다 보다는 푸코의 세기였고, 푸코 보다는 플라톤, 플라톤 보다는 압도적으로 히틀러(A. Hitler)의 세기로 기억되었다. 적어도 1900년부터 2019년 사이에 영어로 책을 적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기억했다.



〈그림 1〉 구글 앤그램 뷰어, (검색어: Hitler,Plato, Foucault, Deleuze, Derrida), 검색일자: 2021.11.14.

모레티는 정전의 여분과 정전을 똑같이 그래프상 한 점으로서 다루었다. 이 그래프도 마찬가지다. 아렌트(H. Arendt)가 언급 한 히틀러가 그래프상에

23) Foucault, M. (1977). Language, Countermemory, Practice. 권영숙, 조형근 옮김 (2015). 푸코. 서울: 새길 아카데미. 205.
24) Aiden E. & Michel J. (2014). 앞의 책. 26 참조.

서 어디에 위치하는가? 바디우(A. Badiou)와 푸코가 언급했던 들뢰즈는 이 그래프의 어디에 있는가? 누가 언급했든지 모두 똑같이 그래프상의 선(線)에 녹아있다. 각각의 점이 얼마나 위대한 저자의 것인지 알아볼 수 없다. 위계를 허무는 독서법이다.

이는 들뢰즈를 폄하하려는 의도에서 시각화한 데이터가 아니다. 오히려 들뢰즈의 전언을 시행한 것이다. "글을 양화하라."[25] 글이 만일 위계를 가지고 있다면, 글을 셀 수 없다. 질적으로 같은 것만을 수량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대 로마에서 인구조사 할 때는 시민권을 가진 17세 이상의 남자만 사람으로 셌다. 어린 아이와 여자와 비로마인들은 성인 남성과 질적으로 다르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위계가 없다면 모두를 셀 수 있다. "본질적인 것은 측정단위이다."[26] 측정단위에 모든 위계를 환원시키기. 대통령을 뽑기 위하여 모든 개별적인 시민들의 법적 권리를 1이라는 숫자로 환원시키듯이 말이다. 따라서 그래프는 민주주의적 독서법이다.

일찍이 문학의 민주주의에 관해 연구한 철학자는 랑시에르(J. Rancière)였다. 문학은 '누구에게 발언권을 줄 것인가'라는 문제와 연루된다. 그래서 정치적인 의도의 여부와 상관없이 문학행위 자체가 정치이다. 문학은 입 없는 자들에게 입을 달아주어서, 몫 없는 자들의 몫을 만든다.[27] 랑시에르는 플로베르를 그 예시로 들었다. 플로베르는 소설에서 귀족과 평민 그리고 사물들을 위계 없이 서술했다. 이는 왕, 귀족, 평민 등에게 각각의 정해진 분량을 서술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에게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다. 문체로 실현한 민주주의다.[28]

그러나 랑시에르가 주장의 근거로 사용한 책인 플로베르(G. Flaubert)의

---

25) Deleuze, G & Guattari, P. (1980). Mille Plateaux: Capitalisme et Schizophrenie. 김재인 옮김 (2003). 천개의 고원. 서울: 새물결. 13.
26) 위의 책. 13.
27) Ranciere, J. (2007). Politique de la Littérature. 유재홍 옮김 (2011). 문학의 정치. 고양: 인간사랑. 11 참조.
28) 위의 책. 17-20 참조.

『마담 보바리』는 여전히 정전이다. 몫 없는 자들의 몫에 관하여 논하기 위해, 몫 있는 자들에게서 그 근거를 도출해내는 아이러니다. 마찬가지로 이 글의 주요 근거는 프랑코 모레티라는 권위 있는 학자이다. 그러나 그래프는 기술(記述)의 근거를 권위에서 찾을 필요가 없다. 모든 몫 있는 자들과 몫 없는 자들에게 1이라는 동일한 몫을 부여한다. 그래프는 랑시에르의 문체 민주주의보다 더 민주적이다.

들뢰즈는 단언했다. "통일성(=단위)이라는 개념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의 다양체 안에서 기표가 권력을 장악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주체화 과정이 생겨날 때뿐이다."[29] 하지만 디지털 인문학은 오히려 반대다. 권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권력을 허물기 위해서 통일성을 만들어낸다. 이 과정에서 주체화 과정이 생겨나지 않는다. 그래프는 특정 주체가 적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그래프는 누가 적은 것인가? 이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이 적은 것이 아니다. 약 800만 권을 적었던 약 800만 명의 사람들이 적은 것이다. 하나의 저자가 아니라 여럿의 저자가 적었다. 주체가 있다면 글을 적는 모두가 주체이고, 권력이 생긴다면 권력은 글을 적는 모든 이들에게 나누어진다. 더 정확히 말해서 정전을 적은 상위 1%의 권력이 전체에게 재분배된다.

따라서 그래프는 새로운 위계가 아니다. 위 그래프에서 푸코가 들뢰즈보다 더 많이 언급되었다. 그러나 이는 푸코가 들뢰즈보다 위대한 철학자라는 근거가 되어주지 못한다. 히틀러는 푸코보다 더 많이 언급되었다. 그렇다면 히틀러가 들뢰즈보다 위대한가? 생각해볼 만한 문제다. 이처럼 데이터는 해석되기 이전의 대상으로서 주어진다.

여기서 데이터를 반성하며 해석하는 것은 사람이지 컴퓨터가 아니다. 컴퓨터는 숫자를 셀 뿐이다. 숫자가 클수록 우월하다는 생각은 선입견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키가 큰 사람이 작은 사람보다 우월한 것도, 손가락이 긴 사람

29) Deleuze G. & Guattari P. (1980). 앞의 책.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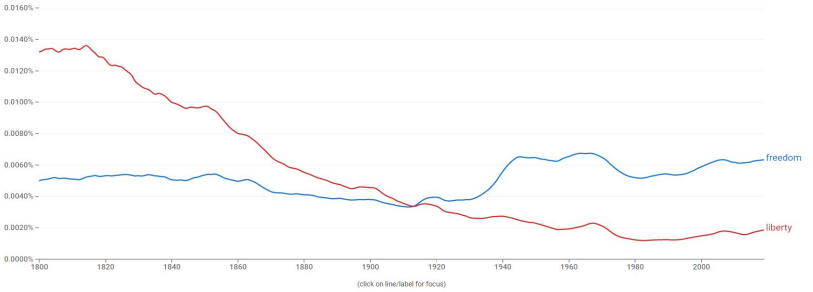
이 짧은 사람보다 우월한 것도 아니다. 모레티도 이 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간다. “그래프는 해석에서 독립된 유형의 데이터를 제공하지만 이것이 한계이기도 하다.”[30] 그렇다. 해석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래프의 장점이자 한계이다. 이 단어 빈도의 그래프는 그 단어가 등장한 문장의 맥락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플라톤을 비판하는 글과 플라톤을 계승하는 글 모두 그래프에서는 같은 수치로 계산된다. 그래서 유의미한 이론을 도출해내는 데 난항을 겪는다.

그래서 멀리서 읽기를 마친 후에는 꼼꼼히 읽기가 요청된다. 가령, ‘자유란 무엇인가?’라고 묻는다고 해보자. 가까이 읽기를 하는 고전적인 학문방식을 고수하는 대학원생이라면, 우선 칸트의 책을 펼쳐야 한다. 그다음 그 학생은 자유와 자율의 관계를 서술하며 자유를 정의하리라. 꼼꼼히 읽기는 텍스트가 하는 말을 듣는다. 텍스트를 주의 깊게 독해해 낼수록 정확한 논문이 나온다.

멀리서 읽기는 정반대이다. 아카이브는 우리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 우리가 질문하지 않으면 아무런 답도 하지 않는다. 꼼꼼히 읽기는 판단하는 능력을 요구하지만, 멀리서 읽기는 실험정신을 요구한다.[31] 꼼꼼히 읽기는 권위를 받아들이는 겸손한 수동성이 요구되고, 멀리서 읽기는 질문을 던지는 과감한 능동성이 필수적이다. ‘자유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멀리서 읽기로 답한다면, <그림 2>의 그래프를 만들 수 있다. 이는 아카이브에게 'freedom'과 'liberty'의 단어 빈도를 질문한 것이다.

파란 선은 'freedom'이고 붉은 선은 'liberty'이다. 둘 다 자유라는 뜻이지만 'freedom'은 개인적이고 적극적인 자유에 가깝고, 'liberty'는 부당한 억압을 받지 않을 법적 권리로서 자유에 가깝다. 가령, 밀의 『자유론』의 원어 제목은 ‘*On liberty*’이다. 반면 이태원에서의 자유로운 삶을 노래한 UV의 곡 이름은 <Itaewon freedom>이다. 1918년을 기점으로 'freedom'이 'liberty'를 추월한다. 여기에서 ‘자유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인류는 자유를 무엇이라고 받아들

30) Moretti F. (2005). 앞의 책. 17.
31) Moretti F. (2013). 앞의 책. 242 참조.



〈그림 2〉 구글 엔그램 뷰어, (검색어: 'freedom','liberty'), 검색일자: 2021.11.14

였는가?"로 바뀐다.

<그림 2>의 그래프는 해석의 대상으로서 주어진다. 가령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시대의 필요성에 따라 자유라는 개념의 사용 빈도가 변화한다. 과거에는 법적 권리가 지켜지지 않아 'liberty'가 언급되어야 할 필요성이 많았다. 그러나 현대에 가까워질수록 그 필요성이 적어졌다. 그래서 'liberty'보다는 'freedom'으로서의 자유를 말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즉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설을 세운 것이다.

그런데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역사 문헌들에 대한 가까이 읽기가 필수적이다. 혹은 계열을 바꿀 수도 있다. 자유를 도덕, 정의의 빈도수 비교를 통해서 바라 볼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그래프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문헌들을 확인해야 한다. 추상화된 책들이 구체적인 책을 부른다. 구체적인 책을 추상화시키고 추상화된 책에서 다시 구체적인 책으로 나아가는 반복이다.

데이터를 관찰하고, 가설을 세우고, 가까이 읽기로 검증한다. 이는 사실 새로운 방식이 아니라 고전 철학 중에서 희랍 철학의 방식이다. 그래프가 하는 일은 소크라테스(Socrates)가 했던 일이다. 소크라테스는 해석 이전에 그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성격을 기술했다. 주어진 데이터 속에서 법칙성을 발견해내는 것이 바로 희랍적인 의미에서의 학문이기 때문이다. 박홍규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 “소크라테스는 <이것이 무엇이냐?What is it?>라고 묻습니다. 그 <it>이 바로 데이터입니다. 우선 데이터가 있고 데이터가 데이터로서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무엇이냐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즉, 그 데이터가 <무엇what이냐>를 묻는 것이지, 그 데이터에 대해서 내 의견이 이렇다, 저 사람 의견이 이렇다 하는 것은 그만두자는 얘기입니다. (중략) 음악은 음악대로, 사회학은 사회학대로, 논리학은 논리학대로, 다 데이터가 있고, 수학은 수학대로, 정치학은 정치학대로의 각각의 데이터 위에 학문은 선다는 것입니다. 그 데이터가 만약 없다면, 그것은 공중에 뜬 어떤 주관적 견해나 사상이죠. 물론 그런 철학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인생관이나 혹은 세계관이라고 말하죠. 그런 것들은 다 자기의 주관적인 견해일 뿐이죠. 그런 철학은 희랍 철학에서 본다면,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서 본다면, 좀 곤란합니다.”[32]

박홍규는 희랍 철학이 데이터 분석이었다고 서술한다. 데이터에 근거하지 않은 철학은 세계관이나 인생관이다. 세계관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다만 그것은 희랍 철학적 관점에서는 철학이 아니다. 희랍 철학은 데이터를 관찰하고 그곳에 어떤 법칙성이 있는지 발견해내는 작업을 학문으로 평가한다. 이 데이터란 각자의 학문 분과마다의 관찰 대상이다. 의사라면 사람의 몸, 음악이라면 악기에서 나는 소리 등이다. 디지털 인문학도 마찬가지다. 책들의 데이터를 통해 얻어낸 법칙성이다. 그래서 디지털 인문학이 철학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그래프도 넓은 의미에서는 해석이 들어가 있다. 사람이 대상을 인식하는 순간 해석이 가미된다. 즉 우리가 그래프를 읽기 전에는 이미 그래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한다. 나아가 여전히 어떤 항목들에 따라 대상을 수치화 시킬 것인가의 문제는 그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것은 해석이다. 그래프도 예외는 아니다.’ 만일 그래프도 해석이라고 한다면, 그래프도 한 사람의 판단이다. 그렇다면 여전히 주체화 과정이 생기고, 위계를 생산한다. 그러나 ‘모든 것은 ~

32) 박홍규 (2013). 형이상학 강의1. 필사자 이정우, 윤문자 이태수. 서울: 민음사. 13-14.

이다.'라는 식의 화법은 논의를 원천 봉쇄한다.

'모든 것은 ~이다.'라는 말은 아무런 의미도 가지지 못한다고 이야기한 것은 베르그송(H. Bergson)이었다. 쇼펜하우어는 모든 것은 의지라고 이야기했다. 베르그송은 답한다. "한 의지가 의지이기 위해서는 의지하지 않는 것과 대비되어야 하는 조건을 갖춰야 함은 명백한 일이 아닐까?"[33] "그것을 모든 사물에 적용하는 순간 그 단어는 의미를 잃어버린다. 그렇다며 단지 세계가 존재한다고 하지 않고 세계가 의지라고 말하는 것이 무슨 이득이 있겠는가?"[34] 한 대상은 다른 대상과의 차이를 통해서만 의미가 규정된다. 다른 사물과의 차이 속에서만 우리는 무언가를 인식할 수 있다. 지금 들고 있는 종이와 주변 모든 사물이 같다면, 우리는 이 사물을 종이라고 인식할 수 없다. '종이'라는 말은 종이가 종이를 올려둔 책상이 아니고, 종이를 들고 있는 손이 아니라는 규정이다.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해석이라는 말은 의미를 결여하고 있는 말이다. 한 단어는 다른 단어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이다.' 속에 무엇이 오던 마찬가지다. "물자체에 어떤 명칭을 부여하더라도, 또 그것을 스피노자의 실체로 만들건, 피히테의 자아로 만들건, 아니면 셸링의 절대로 만들건, 헤겔의 이념으로 만들건, 또 쇼펜하우어의 의지로 만들건 간에 그 단어가 명확히 정의 된 표의를 지니는 일은 별 소용없는 일이다."[35] 따라서 그래프 자체가 이미 해석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의미한 주장이다.

모레티의 디지털 인문학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소설책의 데이터다. 그래서 모레티는 소설비평가다. '소설이 소설로서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격'을 묻는 것이다. 소설 "데이터의 총체 속에 있는 관계를 반성해보는 것이"[36] 그의 학문이다. 세계관이나 인생관이 아니다. 그렇다면 모레티가 그래

33) Bergson, H. (1975). La pensée et le mouvant. 이광래 옮김 (2015). 사유와 운동. 서울: 문예출판사. 61.
34) 위의 책. 62.
35) 위의 책. 61.
36) 박홍규 (2013). 앞의 책. 13.

프에서 '발견한 데이터가 데이터로서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격'은 무엇인가? 바로 문학 장르의 3분의 2가 23년에서 35년이라는 수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모레티는 이를 160년 동안의 44개의 장르의 출판량에 대한 그래프에서 발견했다.[37]

개별적인 문학 장르의 흥망성쇠를 분석했을 때는 정치적인 사건이 그 원인으로 지목 될 수 있다. 가령 1780년부터 시작된 일본 소설의 출판량 감소는 간세이(寬政)와 덴포(天保) 때의 검열에서 기인했다. 이후 메이지 유신에는 소설 출간량이 급등한다. 검열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38] 그러나 전체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다른 원인을 도출해낼 수 있다. 모든 소설장르가 전부다 나름대로의 정치적 이유 때문에 쇠락했는데, 그것이 우연히 약 30년 주기였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같은 일이 동일한 주기로 반복된다면 거기에는 어떤 법칙성이 숨어있다. 가령, 1790년대의 프랑스 소설 출판량은 정치적인 이유로 침체했다. 그런데 같은 침체가 1750년과 1770년에도 있었다.[39] 따라서 정치적인 이유 외의 다른 원인이 그곳에 있다는 추론이 가능해진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30년이 한 세대의 주기이기 때문일까? 그럴듯한 설명이지만 아직은 증명 불가능하다.[40] 사람은 30년 주기로 태어나지 않고 매일매일 태어난다. 따라서 한 세대라는 묶음은 출생년도가 기준이 아니다.[41] 세대는 출생연도가 아니라 사회적인 사건에 따른 유대관계에 따라 묶인다. 그렇다면 사회적 유대관계로 묶인 한 세대가 한 장르의 유통기한일까? 알 수 없다. 30년을 주기로 사회에 급등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새로운 유대관계가 발생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전에는 말이다.[42]

모레티는 『그래프, 지도, 나무』의 첫 장인 「그래프」에서 그래프로 알아낸

37) Moretti F. (2005). 앞의 책. 33 참조.
38) 위의 책. 18 참조.
39) 위의 책. 20 참조.
40) 위의 책. 29 참조.
41) 위의 책. 32 참조.
42) 위의 책. 33 참조.

데이터를 충실하게 기술한다. 해석은 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모레티는 말한다. "그래프는 해석에서 독립적이기 때문에 유용하고, 해석을 요구하기 때문에 도전적이다."[43] 가까이 읽기는 텍스트를 머릿속에서 그려낸다. 머릿속에 있는 것은 타인에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공동의 분석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그래프는 책을 읽으면서 동시에 새로운 텍스트를 만들어낸다. 그래프는 컴퓨터가 책에 그은 밑줄이다. 이 밑줄은 사람이 그은 밑줄과 다르게 객관적 데이터로서 분석 대상이 된다.

그래프는 한 방향에서만 읽힐 수 있는 딱딱한 데이터가 아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데이터가 모두 그렇듯이 말이다. 가령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하자. (수학적으로) 사과가 떨어지기 시작해서 바닥에 닿는 과정을 함수 좌표에 찍을 수 있다. 혹은 (생물학적으로) '가을이 되면 사과가 익어서 떨어진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 아니면 (물리학적으로) 중력이 무엇인지 이야기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같은 자유의 그래프를 보고 여러 방향에서 분석할 수 있다. 앞서 말했듯이 시대의 필요성에 동일한 자유라는 개념의 사용 빈도가 변화했다고도 할 수 있다. 동시에 1960년대에 두 가지 자유가 그래프가 모두 상승 곡선을 그리는 것을 보고 68혁명과 연관 지어 논의를 이끌어 갈 수 있다. 혹은 상승 폭이 큰 1940~1960년대를 2차대전의 끝과 흑인민권운동이라는 사건과 더불어 사유할 수 있다. 그래프는 여러 방향에서 읽힐 수 있는 부드러운 데이터다.

한편, 그래프는 전 인류적인 작가의 법칙성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한 작가를 연구하는 데도 유용하다. 가령 '니체(F. W. Nietzsche)는 어떤 개념을 어떤 시기에 어떤 빈도로 사용했는가?'라는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44] 혹은 '한

43) 위의 책. 42 참조.

44) Alfano, M. (2017) (forthcoming). Digital humanities for history of philosophy: A case study on Nietzsche. In L. Levenberg & T. Neilson ed. Handbook of Methods in the Digital Humanities. 발행처: Rowman & Littlefield. 가 그것을 분석한 논문이다.

국에서 들뢰즈의 개념 중에서 어떤 개념이 연구가 많이 되었고, 어떤 개념이 연구가 덜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전자는 '어떤 개념을 중심으로 그 철학자를 해석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낳는다. 후자는 '그 철학자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이해했고, 어떤 부분을 아직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준다.

예시는 수도 없이 많다. 중요한 점은 예시들이 가까이 읽기로 얻을 수 없는 경험을 가져온다는 사실이다. 바로 책에 대한 개별적인 경험이 아니라, 책에 대한 전체적인 경험이다. 그 범위가 한 철학자의 모든 책이든, 철학자의 모든 책이든, 모든 작가의 모든 책이든 말이다. 연구하고자 하는 대상을 설정하고 그 대상 전체를 읽어내는 것, 그것이 멀리서 읽기의 경험이다.

Ⅳ. 지도와 네트워크: 세력의 다이어그램

멀리서 읽기는 세계를 모방하려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세계에 대한 지도다.[45] 세계에 대한 사본은 세계의 부분들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알려준다. 그런데 지도는 대상을 몇 가지 기호로 환원시킨다. 실제로 그 땅에 있는 대상들은 몇 가지 기호를 통해 생략된다. 지도가 목표로 하는 것은 정확한 모방이 아니라 길 찾기라는 실효성이기 때문이다. "좀 더 운이 따른다면, 그렇게 만들어진 지도는 부분의 합보다 더 커질 것이다."[46] 지도는 지도가 없는 상황에서는 발견될 수 없는 패턴을 수면 위로 올리기 때문이다.[47]

모레티는 말한다. "지도는 정확히 무엇을 하는가? 지도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을 하는데, 만약 설명할 수 있다면 지도는 불필요해지기 때문이다."[48]

---

45) cf."그것은 사본이 아니라 지도이다. 지도를 만들어라. 그러나 사본은 만들지 말아라. (중략) 지도가 사본과 대립한다면, 그것은 지도가 온몸을 던져 실재에 관한 실험 활동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Deleuze G. & Guattari P. (1980). 앞의 책. 30.

46) Moretti F. (2005). 앞의 책. 71.

47) 위의 책. 71 참조.

디지털 인문학에서 지도는 지도로 표현할 때만 인식되는 부분을 만들어낸다. 물론 그래프도 마찬가지였다. 그래프도 한 텍스트에 다른 한 텍스트를 더하기를 반복하는 가까이 읽기의 방식으로는 알 수 없는 구조를 밝혀낸다.

그런데 지도는 그래프로도 알 수 없는 패턴을 밝힌다. 그 패턴은 바로 힘의 관계이다. 그래프가 시간 축이라면 지도는 공간 축이다. 그래프는 시간에 따라 특정 대상의 양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조명한다. 그런데 지도는 한 공간 내에서 대상이 다른 대상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 조망한다. 모레티의 지도에서 중요한 것은 장소 그 자체가 아니다. 이 점에서 지리학적인 지도와는 다르다. 중요한 것은 한 지역과 다른 지역이 가지고 있는 관계이다.[49] 그래서 모레티의 지도는 지도의 모습을 한 다이어그램이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모레티는 파리를 배경으로 한 소설들을 분석했다. 주인공과 주인공이 욕망하는 대상이 있는 지역을 지도에 표시했다. 주인공들은 모두 라틴구에 거주한다. 욕망의 대상은 생제르맹부터 소세 당탱까지 초승달 무리를 형성한다.[50] 이는 작가의 무의식을 발견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되어준다. 각 지역에 대한 인식구조를 파악할 단초이다. 그러나 이는 지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패턴은 아니다. 오히려 전제라고 할 수 있다.[51]

모레티의 글에서 지도는 이후 네트워크로 바뀐다. 『그래프, 지도, 나무』(2005)에서 한 챕터를 담당했던 지도는 『멀리서 읽기』(2013)에서 등장하지 않는다. 대신 그 관계성만을 집중한 「네트워크 이론, 플롯 분석」이 등장한다. 모레티는 지도를 네트워크로 발전시켰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논리적으로는 자연스러운 변화이다. 다시 말하지만, 중요한 것은 '힘들이 모이는 지역이 어디인가?'가 아니라 지역과 다른 지역 사이에서 오가는 힘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관계를 더욱 잘 보여주는 것은 역시 네트워크이다. 우

48) 위의 책. 51.
49) 위의 책. 74 참조.
50) 위의 책. 72 참조.
51) 위의 책. 73-74 참조.

선 지도가 있고, 네트워크는 그다음에 논리적으로 따라 나온다.

그 예시로 2019년에 나온 한국에서 발행된 논문 「디지털 인문학과 송대사 연구」의 구조를 들 수 있다. 논문은 나온 과거급제자의 분포도를 지도로 표시한다.[52] 그 지도는 해석의 대상으로서 질문을 낳는다. 남송대 명주지역(오른쪽 하단)에 급제자가 왜 이토록 많았을까? 급제자의 중심지인 명주지역과 동떨어진 사천지역(왼쪽 상단)에도 꾸준히 급제자가 나온 원인은 무엇일까? 남송대 명주는 누씨 일가가 영향력을 행사한 지역이었다. 그렇다면 혹시 누씨 일가의 권력과 장원급제자 사이에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논문은 과거 급제자와 누씨 일가의 친인척들의 혼인관계도를 보여준다. 그 다음으로는 누약의 영향력이 끼쳤던 주요 인물들의 관계망을 보여준다. 이를 과거 급제자의 목록과 포개어 본다.[53] 이를 통해 급제자와 누씨 일가와 인접한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들의 관계를 알 수 있다.

이 예시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이 논문의 내용이 아니라 논리적 구조이다. 지도가 선행하고, 지도를 해석하기 위하여 관계망을 요청한다는 사실이다. 지도만으로는 지도에 표시된 대상들을 분석하기 힘들다. 왜 특정 지역에서만 과거 급제자들이 나오는지 알려면 지도를 토대로 네트워크를 분석해야 한다. 지도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관계를 분석하지 않으면, 지도는 영원한 수수께끼로 남는다.

모레티의 지도는 사본이 아니다. 여기서 지도는 대상에 대한 추상화 과정을 거쳐 관계망을 파악하기 위한 작업이다. 세계를 개별적인 장소들의 집합이 아니라 관계의 그물로 바라보려는 관점의 전환이다. 중요한 것은 그 지식을 통하여 어디로 갈 수 있는지이다. 대상을 어떤 방식으로 변형 시켜 어떤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느냐다.

지도에 대하여 짧고 날카로운 통찰을 한 것은 보르헤스(J. L. Borges)였다. 「과학에 대한 열정」은 완벽한 지도를 만들려고 하는 어느 나라의 이야기다.

---

52) 배숙희 (2019), 디지털 인문학과 송대사 연구, 동양사학 연구, 146호. 157-191. 170 그림 참조.
53) 위의 논문. 175 참조.

그런데 지도가 너무나 커져 도시를 뒤덮었다. 그래서 이 지도는 후대에 의해 버려졌다. 결국 지도는 외딴 곳에서 짐승들과 거지들의 소굴이 되어버렸다.[54] 반 쪽 분량의 이 이야기는 기술(記述)과학에 대한 패러디다. 대상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대상에 대하여 가장 정확한 사본은 대상 그 자체이다. 즉 세계에 대한 사본을 만들려는 시도는 동어반복이다.

그렇다면 관계의 그물은 어떤 지식을 생산하는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권력이 생산되는지를 알 수 있다. 한국철학의 권력이 어떻게 생산되었는지 분석한 것은 송은영, 한준의 논문, 「조선시대 서원의 배향인물 연결망 시간적 흐름에 따른 선호적 연결 원리의 변화」다. 조선시대 철학자들의 허브(hub)는 누구였는가? 이황이었다. 학문에 매진할 수 있었던 조선 당파분쟁 이전에도 허브였고, 당파 전쟁 이후에도 허브였다. 저자들은 랜덤한 노드(node)들이 선호적 연결(preferential attachment)에 따라 관계 맺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55] 다시 말해 한 번 허브가 되면 영향력이 고착화 되어 쉽사리 바뀌지 않는다.

현대 학계에 대한 분석으로는 김한길의 「한국 교육행정학 연구 네트워크 분석」이 있다. 교육행정학 분야에서 개인이 연구자로서 자리 잡는데 사회적 자본이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분석했다. 즉 연령, 학벌, 인맥, 성별 등에 따라 학자가 되는데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네트워크를 통해 분석했다. 분석을 요약하자면, 학자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따야 하고, 60대 이상 남성이어야 하며, 대학원생 때부터 선후배와 교수와 공동 저술한 논문이 있어야 했다.[56]

모레티는 관계망을 통해 서양과 동양의 문학을 분석했다. 문학작품 속에서는 주인공이 네트워크 중심에 있다. 달리 말해서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는

54) Borges, J. (1995). El informe de Brodie. 황병하 옮김 (2005). 칼잡이들의 이야기. 서울: 민음사. 67 참조.

55) 송은영, 한준 (2010), 조선시대 서원의 배향인물 연결망 시간적 흐름에 따른 선호적 연결 원리의 변화, 한국사회학, 44호. 25 참조.

56) 김한길 (2015), 한국 교육행정학 연구 네트워크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석사학위 논문. 72-73 참조.

사람을 주인공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 주인공을 중심으로 다른 인물들이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분석했다. 텍스트는 디킨스(C. J .H. Dickens)의 『우리 모두의 친구들』과 조설근의 『홍루몽』이다. 디킨스의 경우에는 인물들의 관계가 대칭적이다. 즉 인물들이 모두 이항대립으로 이루어져있다.[57] 중국소설은 문장의 차원에서 유럽 소설 보다 더 대칭적이다. 아예 문학기법으로서 병문을 사용한다. 병문이란 '보옥은 낮에 차를 마셨고, 손님들은 밤에 술을 마셨다.'와 같은 병렬적인 문장이다. 그러나 인물들의 관계망을 보았을 때는 비대칭적이고 패턴을 찾아보기 힘들다. 장의 차원에서는 비대칭적이다.

동서양이 인간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차이일까? 중국은 미시적인 관점에서 세계를 대칭으로 보는데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파악할 수 없는 전체로 보고, 영국은 미시적인 관점에서 세계를 비대칭으로 보는데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대칭으로 보는 것일까?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 아무리 두껍다고 하더라도 두 권의 소설로는 내릴 수 없는 결론이다.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 지점이므로 아직까지는 무엇도 증명되지 않았다. 그러나 모레티의 네트워크가 새로운 문화비평의 길을 열어주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한 문화가 말하는 방식 속에 어떠한 법칙이 내재해 있는지 읽어내고 과학적 방법론으로 증명할 수 있는 도구가 이제는 생겼다. 이는 개별적인 독서로는 알 수 없고, 빅데이터만이 증명할 수 있는 영역이다. 법칙은 책상 앞에 앉아서 혼자 생각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데이터를 보고 그 안에서 무엇이 반복되는지 읽어야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V. 나무: 데이터에 관한 비위계적 해석

모레티가 마지막으로 제시한 시각화 방식은 나무다. 그래프는 해석 이전

57) Moretti F. (2013). 앞의 책. 332 참조.

의 데이터였다. 그런데 나무에서 모레티는 해석한다. 멀리서 읽기의 질문 중 하나는 이것이었다. 99%의 문학과 1%의 정전이 있다. 정전은 어떻게 정전이 되었고, 99%의 문학은 왜 읽히지 않은 채로 남겨졌을까? 나무는 그 이유를 보여준다.[58] 독자들은 왜 도일의 추리 소설만을 좋아하고, 다른 추리 소설은 덜 좋아할까? 왜 보들레르의 시를 좋아하고, 당대에 출판된 무수히 많은 다른 시들은 덜 좋아했을까? 모레티는 그 이유가 형식에 있다고 답한다. 독자들은 그 책이 사용하고 있는 기법 때문에 그 책을 더 좋아한다.[59]

모레티는 기법을 통해 문학 시장에서 살아남은 책을 예시로 든다. 보들레르(C. Baudelaire)와 도일, 자유간접 화법을 사용했던 책들이 그것이다. 보들레르의 경우에는 데이터가 아니라 벤야민(B. Benjamin)의 말에 의존한다. 벤야민은 「중앙공원」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60] 보들레르는 경쟁자들을 뿌리 뽑는 전략을 취했다. 주지하듯이 보들레르는 낭만주의와 고전주의를 변증법적으로 통합한 현대시의 아버지이다. 12음절 시구를 사용하여 낭만주의의 자유로운 발화와 거리를 두었고, 시 안에서 공백을 두고 악을 주제로 삼음으로써 고전주의를 타파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보들레르는 경쟁자들 사이에서 군계일학이 되었다. 보들레르가 새로운 기법을 사용한 이유는 낭만주의와 고전주의 기법 보다 우월하다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였다.[61] 즉 "경쟁자들을 뿌리 뽑기 위한 형식적 선택들"[62]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문화사에서 빈번히 일어난다. 이른바 '친부살해의 역사'다. 그런데 새로운 기법은 반드시 성공을 가져오는가? 예술의 새로운 움직임이 성공한 것은 그것이 새로웠기 때문인가? 새로운 것이 성공적일 것이라는 믿음은 학문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데이터을 확인해 보아야한다. 모레티가 『그래프, 지도, 나무』에서 제시하고, 『멀리서 읽기』에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나무의 사

58) 위의 책. 112 참조.
59) 위의 책. 105 참조.
60) Benjamin, W. (1985). Central Park, New German Critique 34. 재인용: 위의 책. 같은 곳.
61) 위의 책. 105 참조.
62) 위의 책. 같은 곳 참조.

례는 추리 소설이라는 장르다. 추리 소설의 정전은 두말 할 것도 없이 도일의 『셜록 홈즈 전집』이다. 모레티는 도일의 책과 당대에 나온 다른 20권의 추리 소설을 시각화했다. 이는 형식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63]

첫 번째 분기에서 도일의 경쟁자들은 실마리 기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실마리 기법이란 말 그대로 파편적인 정보를 통해 범인을 밝혀내거나 새로운 정보를 얻어내는 기법이다. 마치 의사들이 파편적인 정보로 환자의 병명을 진단하듯이 말이다. 실마리 기법을 사용하지 않은 작가들은 잊혀졌다. 독자들이 읽지 않았기 때문이다. 추리소설의 독자들이 추리소설에서 기대하는 것은 주인공의 뛰어난 추리 능력이다. 즉 실마리를 통해 어려운 사건을 해결하는 이야기이다. 그래서 책에 실마리 넣은 도일은 살아남았고, 경쟁자들은 잊혀졌다.[64]

그렇다면 실마리 기법을 사용하는 작가들은 살아남고, 그렇지 않은 작가들은 잊히는가? 그렇지 않다. 최초의 분기에서는 실마리를 가진 소설이 살아남았지만, 그 이후에는 아니다. 두 번째 분기에서부터는 경쟁자들도 알아차렸다. 독자들이 실마리를 좋아한다는 것을 말이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잊혀졌다. 기법을 흉내 낸다고 해서 그 기법을 사용했다고 말할 순 없다. 그 기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법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즉 필연성에 따라 전개해야 한다. 그들은 실마리를 필연성에 따라 사용하지 못했다.

세 번째와 마지막 분기에서는 오히려 아예 실마리가 없음에도 실마리를 가진 소설보다 인기가 많은 소설이 다수였다. 코난 도일의 초기 소설들은 단순했기 때문에 실수가 적었다. 그러나 후기로 갈수록 소설은 정교화 되어야 했다. 따라서 더 많은 실수를 범했다. 코난 도일은 실마리를 전략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얻어 걸린 것이다. 코난 도일은 우연히 다른 작가들보다 실마리를 잘 사용했다. 인기를 끌게 하는 것은 형식이다. 그런데 새로운 형식을 쓰게 만드는 것은 우연이다[65] 정전들이 살아남은 것은 필연이 아니다. 역사가 필연

63) 위의 책. 107 도표 참조.
64) Moretti F. (2005). 앞의 책. 91 참조.
65) Moretti F. (2013). 앞의 책. 116 참조.

적인지는 알 수 없다. 만일 필연적이라고 주장한다면 데이터를 다루는 영역에서 벗어난다. 필연적인 것은 나무다.[66] 즉, 종이 다양화 되는 것은 필연적이지만, 어떤 종이 살아남을지는 알 수 없다.

「나무」에서 모레티는 개별적인 문학 작품들을 두 단계로 분류했다. 우선, 작품들을 장르로 환원시켜 수집하고, 수집된 책들을 기법에 따라 분기 시킨다. 장르와 기법은 텍스트가 아니다. 장르는 텍스트가 존립가능하기 위한 거대한 구조이다. 기법은 텍스트 안에 작동하고 있는 미세한 흐름이다.[67] 양자 모두 개별적인 텍스트를 분석하는 것이 아닌 텍스트가 속해있는 구조에 따라 나누는 방식이다. 멀리서 읽기다. 그런데 모레티가 나무를 통해서 위계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프를 통해서 벗어난 위계를 향해 회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문학을 장르로 나누는 것은 위계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오해다. 모레티는 기존의 사용 방식을 뒤집어 장르 개념을 사용했다. 장르는 본래 자연과학에서 차용한 개념이다. 개별적인 대상들을 특정 종으로 분류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자연과학의 분류와 문학의 분류는 다르다. 장르란 개별 작품을 모두 모아서 동일성만을 추출해내어 형성된 개념이 아니다. 장르는 연역의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장르에 대한 규정은 한정된 데이터를 가지고 가설을 만들어낸 다음, 다시 개별 데이터로 가져가 검증하는 방식을 거친다.[68] 즉 유형화된 작품들을 가지고 전체를 설명하는 방식이다.

가령, 자연과학에서는 백조들을 관찰하고, 모든 백조에게는 날개와 깃털이 있다는 가설을 도출해내어 조류라는 분류로 묶을 수 있다. 만일 깃털이 없고 날개도 없는 백조 한 마리가 있다고 해도 백조 일반이라는 종의 정의가 바뀌지는 않는다. 그런데 문학은 기존에 있었던 정의로 포섭될 수 없는 대상이 될 때에만 표본이 된다.[69] 즉 추리소설이라는 장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66) 위의 책. 124 참조.
67) 위의 책. 111 참조.
68) Todorov, T. (1970). Introduction à la littérature fantastique. 최애영 옮김 (2013). 환상문학 서설. 서울: 일월서각. 10 참조.
69) 위의 책. 14 참조.

는 추리소설이라는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실마리라는 예외적인 기법을 사용해야 한다. 그때 추리장르라는 구분이 새롭게 생기고 문학사를 경계 짓는 기둥이 옮겨진다. 하나의 반례가 등장할 때마다 종 전체가 변화를 겪는 셈이다.[70] 다시 말해서 문학사를 위대한 작가들의 계보로 환원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장르의 나무는 정전을 적은 위인과 그의 추종자들이라는 구도를 취하지 않는다. 원본과 복사물, 올바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가르는 것은 플라톤주의적인 구도이다. 플라톤은 『정치론』에서 올바른 통치자와 그렇지 않은 통치자, 『파이드로스』에서는 올바른 광기(=사랑)와 그렇지 않은 광기를 나눈다. 원본과 비교하여 경쟁자들을 걸러내는 것이다. 여럿을 원본과 비교하여 뒤떨어지는 자들을 잘라내는 방식이다.[71] 모레티는 이를 의식하고 자신이 하고 있는 작업은 플라톤주의가 아니라고 강조한다.[72] 모레티는 플라톤주의와 다른 구도를 설정한다. 경쟁자들 중에서 가장 탁월한 경쟁자란 없다. 다만 시장에 적응한 경쟁자가 있을 뿐이다. 그것도 의도와는 상관없이 우연히 말이다. 종(種)이 분화가 될 뿐이지 우열이 나뉘는 것은 아니다.

모레티에게 나무란 "서로를 복제하기보다는 서로로부터 멀어져가는 형식적 선택들"[73]이다. 일자로 수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발산 되어간다. 같은 형식이 다른 저자들을 거쳐 가며 반복되는 것이 아니다. 다양화 될 뿐이다. 가지들은 서로에게서 멀어져 가며 질적으로 다른 책이 된다. 즉 형질 분기이다. 나무는 권위를 정당화 하는 계보가 아니다. 책이 독자들에게 인기를 얻거나 잊히기 전, 잠재적인 상태에서 그 두 책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 살아남은 책과 죽은 책이 가까운 가지에 속했으나 그것이 시간에 따라 현행 되었을 때에는 그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이다.[74]

---

70) 위의 책. 15 참조.
71) Deleuze G. (1981). Logique du sens. 이정우 옮김 (2017). 의미의 논리. 파주: 한길사. 406-407 참조.
72) Moretti F. (2013). 앞의 책. 111 참조.
73) 위의 책. 같은 곳.

그에 관한 철학자의 사례가 있다. 물론 모레티의 연구에서는 없다. 그런데 모레티 이전에 모레티와 비슷한 연구를 한 사회학자가 있었다. 바로 콜린스(R. Collins)다. 그는 '*Sociology of philosophy*'에서 묻는다. "무엇이 특정한 사상과 텍스트에 이 신성한 지위를 주는가?"[75] 이 저작에서 그는 왜 특정 철학자들이 정전으로 읽히는지 사회학적으로 밝힌다.

키에르케고르(S. A. Kierkegaard)는 사라진 무명 철학자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가지(branch)다. 키에르케고르는 잊히기에 좋은 철학책의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문학과 철학의 하이브리드를 추구했다. 그런데 당시에 잘 읽히는 철학책의 형식은 대상을 추상화시키는 방식이었다. (2) 키에르케고르는 지방 사람이었다. 나라의 중심지에서 공부했으나 자퇴생이 되어 지방으로 밀려났다. 키에르케고르가 철학사에 남은 것은 기적에 가깝다. 키에르케고르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막대한 재산을 모두 책을 쓰는 데 탕진해버리고, 1856년에 죽었다. 키에르케고르가 독일어로 번역된 것은 1880년대의 일이다. 베를린에 사는 덴마크 평론가 브란데스(G. Brandes) 덕분에 빛을 보았다. 키에르케고르의 유명세가 시작된 것은 죽은 지 30여년이 지난 후였다. 니체를 연구하는 클럽이 키에르케고르를 홍보하는 데 애썼다.[76]

키에르케고르는 니체와 닮았지만 니체와 같은 학문적 네트워크에 속하지 못했다. 니체도 학계의 중앙에 속해 있다가 변방으로 밀려났다. 키에르케고르는 셸링, 니체는 바그너에게 촉발되어 저작들을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니체는 학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라이프치히의 문헌학자들과 알고 지냈고, 도이센(P. Deussen)의 친구였고, 부르크하르트(C. Burckhardt)에게 강의를 들었으며, 바그너(R. Wagner)와 한때 긴밀한 관계였다. 반면, 키에르케고르는 학계로부터 고립되었다. 셸링(F. W. J. V. Schelling)의 강의를 들었다가

74) 위의 책. 107 도표 참조.
75) Collins, R. (2002). The sociology of philosophies : a global theory of intellectualchange (Fourth printing), Cambridge, Massachusetts, and London, England: Havard University Press. 19.
76) 위의 책. 767-768 참조.

자퇴한 것과 트렌델렌부르크(F. Trendelenburg)에게 영향 받은 것이 키에르케고르 인맥의 전부다.[77]

<젊은 헤겔주의자와 종교/정치적 급진주의자, 자유주의자와 허무주의자 1835-1900>(*Sociology of philosophy*, 766)를 보면 니체가 여러 노드들과 연결되어 있지만, 키에르케고르는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독일 네트워크, 1835-1900: 신칸트주의자, 역사주의자, 실증주의자, 심리학자>(*Sociology of philosophy*, 690)의 나무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나무에만 한정하자면, 니체는 살아남은 가지이고, 키에르케고르는 죽은 가지다. 그 밑으로 뻗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키에르케고르는 철학사에서 만날 수 있는 철학자가 되었다. 살아남을 가지와 죽을 가지를 판별하는 일은 이토록 어렵다. 물론 특정 가지가 살아남은 데에는 이유가 있다. 그러나 죽은 가지들에도 살아남을 근거가 있었다. 다만 죽은 가지가 될 뻔했던 키에르케고르가 살아남은 것은 니체 클럽이라는 후원자가 출판 시장에서의 생존을 도와주었기 때문이다.

모레티는 형식을 단위로 나무를 그렸다. 콜린스는 지인 묶음(acquaintance tie), 사제 묶음(master-pupil tie), 대립 묶음(conflictual tie)으로 나무를 그렸다. 이것이 문학사와 철학사의 차이인지 문학비평가인 모레티와 사회학자인 콜린스의 차이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 문학이 형식을 중심으로 발전되는 것과 달리 철학이 도제 관계에 의하여 계승되는지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과연 문학은 지인 묶음, 사제 묶음, 대립 묶음에 의하여 계보가 쓰이지는 않는지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형식과 콜린스의 묶음 중 어떤 것이 각 계보에 적절한지는 또 다른 디지털 인문학적 작업이 될 것이다.

모레티는 그래프에서 책들을 양화 시켰다. 그래프에서는 각각의 점과 그 점이 어느 저자의 것인지 인식불가능하다. 그런데 나무에서는 이것이 인식가능하다. 살아남은 가지들에 속한 개별적인 책 제목들을 우리는 볼 수 있다.

77) 위의 책. 767 참조.

나무는 망각 속에 묻혀있는 책들을 가시성의 영역으로 끌어올린다. 얼굴 없는 자들에게 얼굴을 돌려주는 것이다. 콜린스의 나무에서도 마찬가지다. 트렌델렌부르크의 제자 마이어(J. B. Meyer)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적을 것이다(*Sociology of philosophy*, 690). 나무는 정전 이외의 책들을 볼 수 있도록 만든다. 얼굴 없는 자들에게 얼굴을 돌려주는 것이다.

그런데 위계가 사라지더라도 동일성은 남는다. 각각의 계열들이 어떤 운동을 반복하게 하는지에 대한 법칙은 남는다.[78] 중요한 것은 동일성에 모든 것을 환원시키지 않는 것이지 동일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모레티에겐 그 동일성이 바로 기법이고, 나아가서는 장르였다. 반복되는 운동을 미시적으로 보느냐 거시적으로 보느냐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나무가 수렴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레티의 사례는 자유간접화법이다. 자유간접화법은 직접화법과 간접화법이 결합된 서술이다. 본래 영국에서 사용된 기법으로서 자기객관화의 도구였다. 자유간접화법이 러시아에 가면 내면의 갈등을 다루게 되고, 이탈리아에 가면 다중인격, 사투리, 구전신화를 표현하는 데에 사용된다. 프랑스에서는 이 모든 것이 약간씩 사용된다. 조이스(J. Joyce)의 『율리시스』에서 사용된 기법은 의식의 흐름이다. 이때 자유간접화법은 본래의 3인칭에서 2인칭으로 변한다. 그런데 2인칭을 사용한 것도 잠시이고, 결국 1인칭이 되어버린다. 라틴아메리카 독재자 문학도 3인칭으로 시작했다가 1인칭이 되어 버린다. 개인을 3인칭 대상에 투영하게 된다.[79]

도스토옙스키(F. M. Dostoevskii)의 경우, 『죄와 벌』에서 라스콜니코프의 내적 갈등을 묘사하면서 자유간접화법을 사용했다. 그런데 자기객관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머릿속 결론이 나지 않는 스스로와의 논쟁을 그려내기 위해서였다. 이때 자유간접화법은 본래의 성격을 잃고 열린 결말을 향한다. 자유간접화법에서 대화주의(dialogisme)로의 이행이다. 뿌리 내린 나라에 따라서 자유간접화법이라는 기법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되는 것은 자유간접화법이 현

78) Deleuze G. (1981). 앞의 책. 418 참조.
79) Moretti F. (2005). 앞의 책. p101-110 참조.

지화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각 소설 속에서 포기 되지 않는 고유함이 자유간접화법을 밀어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대한 한 형식이 각 나라들로 뻗어가며 자신의 동일성으로 수렴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나의 기법을 사용하면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한다. 도스토옙스키가 자유간접화법 보다 대화주의를 선택했듯이 말이다. 다시 말하지만 나무는 수렴이 아니다. 일자로 환원시키는 것이 아니다. 형질분기다.[80]

Ⅵ. 결론

디지털 인문학은 과학적이면서 동시에 포용적이다. 우선, 데이터를 통하여 데이터가 그 데이터로서 가지고 있는 성질이 무엇인지를 밝히기 때문에 과학적이다. 데이터를 통해 세운 이론은 반례의 데이터가 나오면 언제든지 수정가능하고 반증가능하다. 따라서 비(非)독단적이다. 나아가, 지금껏 데이터로서 다루어지지 못했던 데이터를 다루기 때문에 포용적이다. 디지털 인문학은 여느 나라 왕들의 족보와 닮은 인문학자들의 족보에서 벗어난다. 디지털 인문학은 소설가들의 족보, 시인들의 족보, 철학자들의 족보를 그래프, 나무, 지도라는 민주적인 그림으로 대체할 수 있다.

디지털 인문학에서 독서법은 어떤 변화를 겪었는가? (1) 그래프를 통하여 정전 중심의 독서법에서 모든 책들을 평등하게 읽는 독서법으로 변했다. 책에서 지식을 받아들이는 독서에서 책들의 아카이브에게 질문하는 독서로 변했다. (2) 지도를 통하여 문화의 생산물인 개별적인 책이 아니라 문화 지평 자체를 읽는다. 누가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지를 읽고, 각 문화가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읽는다. (3) 나무를 통하여 원본인 정전과 경쟁자인 나머지 복사물들이라는 플라톤적 구도를 벗어난다. 이제는 책들이 서로 경쟁

80) 위의 책. 103-109 참조.

하지 않는다. 다만 서로 분화되어 간다. 죽은 가지들을 소생시키는 작업은 이미 시작되었다.

【주제어】 디지털 인문학, 프랑코 모레티, 멀리서 읽기, 구글 엔그램 뷰어, 독서법

[참고문헌]

김용수 (2019). 세계문학과 디지털인문학 방법론, 비평과 이론, 49호. 59-78.

김한길 (2015), 한국 교육행정학 연구 네트워크 분석, 교육학과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홍규 (2013). 형이상학 강의1. 필사자 이정우, 윤문자 이태수. 서울: 민음사.

배숙희 (2019), 디지털 인문학과 송대사 연구, 동양사학 연구, 146호. 157-191.

송은영, 한준 (2010), 조선시대 서원의 배향인물 연결망 시간적 흐름에 따른 선호적 연결 원리의 변화, 한국사회학, 44호. 22-47.

이정우 (2016), 사건의 철학, 서울: 그린비.

차주항 (2020), 빅데이터와 인문학의 미래, 문명과 경계, 3호. 43-77.

Aiden, E. & Michel, J. (2014). Uncharted: Big Data as a Lens on Human Culture. 김재중 옮김 (2015). 빅데이터 인문학, 진격의 서막. 파주: 사계절.

Alfano, M. (2017) (forthcoming). Digital humanities for history of philosophy: A case study on Nietzsche, In L. Levenberg & T. Neilson ed. Handbook of Methods in the Digital Humanities. 발행처: Rowman & Littlefield.

Bergson, H. (1975). La pensée et le mouvant. 이광래 옮김 (2015). 사유와 운동. 서울: 문예출판사.

Borges, J. (1995). El informe de Brodie. 황병하 옮김 (2005). 칼잡이들의 이야기. 서울: 민음사.

Brecht, B. (2018), The Collected Poems of Bertolt Brecht. 백정승 옮김 (2014). 서푼짜리 오페라/살아남은 자의 슬픔. 서울: 동서문화사 2014.

Collins. Rendall (2002). The sociology of philosophies : a global theory of intellectualchange(Fourth printing), Cambridge, Massachusetts, and London, England: Havard University Press.

Deleuze, G. & Guattari, P. (1980). Mille Plateaux: Capitalisme et Schizophrenie. 김재인 옮김 (2003). 천개의 고원. 서울: 새물결.

Deleuze, G. (1981). Logique du sens. 이정우 옮김 (2017). 의미의 논리. 파주: 한길사.

Foucault, M. (1977). Language, Countermemory, Practice. 권영숙, 조형근 옮김 (2015). 푸코. 서울: 새길 아카데미.

Moretti, F. (2005). La letteratura vista da lontano. 이재연 옮김 (2020). 그래프, 지도, 나무. 파주: 문학동네.

Moretti, F. Distant Reading (2013). 김용규 옮김 (2021). 멀리서 읽기. 서울: 현암사.

Ranciere, J. (2007). Politique de la Littérature. 유재홍 옮김 (2011). 문학의 정치. 고양: 인간사랑.

Todorov, T. (1970). Introduction à la littérature fantastique. 최애영 옮김 (2013). 환상문학 서설. 서울: 일월서각.

[국문초록]

18세기부터 유럽 소설은 정독에서 다독으로 그 독서법을 바꾸면서 세계문학에서 지배적인 위상을 차지했다. 현대에도 독서법의 변화가 생겨났다. 디지털 인문학(digital humanities)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유학자이든 헤겔주의자이든 후기구조주의자이든 신학자든 같은 독서법을 공유하고 있다. 가까이 읽기(close reading)가 그것이다. 텍스트를 꼼꼼히 읽는 독서법은 인문학 연구자가 당연시하는 전제다. 반면 디지털 인문학은 가까이 읽기를 뒤집는다. 멀리서 읽기(distant reading)가 그것이다. 멀리서 읽기는 텍스트에서 멀리 떨어져서 전체를 조망하는 독서이다. 이때 가까이 읽기로는 읽어낼 수 없는 지평이 드러난다. 모레티는 멀리서 읽기의 시각화 방법으로서 그래프(graph), 지도(map), 나무(tree)를 체계화했다. 이 방법들의 함의를 사유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디지털로 책을 읽는 것은 단순히 독서 도구의 변화가 아니라 독법의 변화다. 지금까지 인류가 해온 독서법과는 질적으로 다른 독서이다. 그런데 이는 양적 변화에서 기인한다. 한 사람의 짧은 수명으로는 인류가 적은 책 전체를 읽을 수 없다. 그런데 컴퓨터의 발달로 책 전체를 다룰 수 있게 되었다. (1) 즉 디지털 인문학은 가까이 읽기에서 멀리서 읽기로의 변화다. 나아가 개별적인 책들이 아니라 책들이 서 있는 지평에 대한 독서이다. (2) 정전(canon) 중심에서 책 전체에 대한 독서법으로의 변화이다. 나아가 지식을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독서에서 질문이 필수적인 독서로의 변화이다. (3) 세계에 대한 사본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지도를 만드는 독서이다. 나아가 세계를 개별적인 장소들의 집합이 아니라 관계의 그물로 바라보려는 관점의 전환이다. (4) 원본인 정전과 경쟁자인 나머지 복사물들이라는 플라톤적 구도를 벗어나는 독서이다. 나아가 나무는 분화한 가지 중에 죽은 가지들의 가치를 되살릴 가능성을 품고 있다.

[Abstract]

The Reading Method of Digital Humanities

Yi, Deg Jae (Yonsei University)

Since the 18th century, European novels have changed their reading method from careful reading to extensive reading, and have taken a dominant position in world literature. Today, there has been a change in reading methods. This is because digital humanities has appeared. Every branch of liberal arts share the same reading method, "close reading." However, digital humanities use "distant reading." To read from afar is to look at the whole thing far away from the text. Moretti organized Graph, Map and Tree as visualization methods for reading from afar. Reading books digitally is not just a change in reading tools, but a change in reading way. It is a reading that is qualitatively different from the reading methods used by mankind. However, this is due to quantitative changes. One man's short life span is not enough to read a whole book. However, with the development of computers, it is possible to handle an entire book. (1) In other words, digital humanities is a shift from familiar reading to distant reading. It is not only about reading individual book(s), but a reading of the field in which the book stands. (2. Graph) This is a change from the canon to a reading method for the whole book. Furthermore, it is a shift from passive reading that accepts knowledge to essential reading. (3. Map) It's not a copy of the world, it's map-making reading. Moreover, it is a shift to a view of the world as a network of relationships rather than a collection of individual places. (4. Tree) It is a reading that breaks away from the platonic structure of the original Canon and the rest of the rival copy. In addition, trees have the potential to revive the value of dead branches in differentiated branches.

【Keywords】 digital humanities, Franco Moretti, distant reading, Google Ngram Viewer, reading method

논문투고일: 2022년 10월 31일 / 논문심사일: 2022년 12월 08일 / 게재확정일: 2022년 12월 22일

【저자연락처】 dlejrwosi@naver.com